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 의정활동보도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동북일보 4면

## 강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김명숙 의원, 부위원장 이용균 의원, 제1차 추경 예산 219억 9천604만원 심의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은 지난 8월 28일 열린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를 구성하고, 위원으로 이영심 의원, 이백균 의원, 이정식 의원, 이용균 의원, 김명숙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이어 열린 제1차 예결위에서는 위원장에 김명숙 의원, 부위원장에 이용균 의원을 선임하였다.

예결위위원장 김명숙은 2015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9월 3일 열리는 제2차 예결위에서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추경예산을, 9월 4일 열리는 제3차 예결위에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 추경예산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을 심의한 후 9월 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번에 편성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219억 9천604만 원이 증액된 4천 580억 6천 793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11억 3천375만 원 증액된 4천 439억 7천 233만 원, 특별회계가 8억 6천 229만



▲ 위원장 김명숙 의원.



▲ 부위원장 이용균 의원.



▲ 위원 이영심 의원.



▲ 위원 이백균 의원.



▲ 위원 이정식 의원.

원 증액된 140억 9천 560만 원이다.

이상형 기획재정국장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직원 인건비 부족분과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등 필수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주민불편 해소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과,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순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8억 6천 229만 원을 편성하였다" 고 밝혔다.

김명숙 예결위원장은 "메르스 여파로 크

게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강북구민 모두가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투명하고 균형잡힌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한편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들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고 위원장으로서의 다짐을 밝혔다.

이용균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사기간동안 예결위 위원들과 함께 추경예산이 강북구민과 지역경제를 위해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또한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강북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 (최동수 기자)